

박상우 장관, “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” 강조

- 12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기업유치와 SOC 등 적극 지원 표명
- 새만금 명실상부한 ‘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’ 으로 발전 당부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*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였다.

* '22.5월 이후 투자유치 : 10.2조원 ('13.9~'22.5 1.5조원 유치)

□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“새만금을 명실상부한 ‘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, 용지 매립사업*과 도로,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,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* 1·2·5·6 공구 8.1km² 조성 완료(~'24.6), 3·7/8 공구 6.0km² 매립 착공 ('23.10/'24.2)

** 새만금 기본계획(2011~2050) 재수립 용역 중('24.4~'25.12)

○ 아울러, “‘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*’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* (용역기관) 교통연 컨소시엄(한국교통연구원·국토연구원·한국해양수산개발원)
(용역기간) '23.11~'24.6(8개월)

□ 이어서, 수변도시 조성공사*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“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,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”을 주문하였다.

* 인구 3.9만명 수용 계획으로 수변도시 조성공사 착공('23.11)

○ 또한,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“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, 그늘,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”해 줄 것을 현장 책임자에게 당부하였다.

2024. 8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